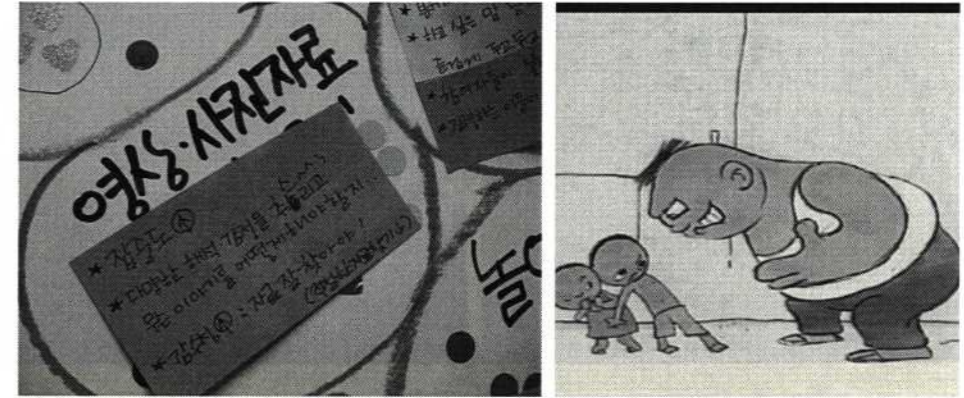


10) 모둠별 토론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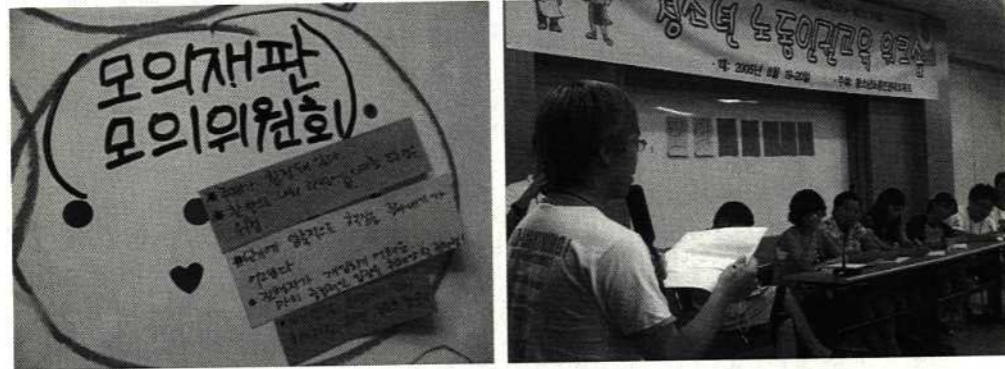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를 주고 사례 속에 숨어 있는 인권 문제나 해결책 찾아보기</li> <li>○ 모듬별로 질문이나 쟁점을 던져주고 입장 정리해보기</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진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해답을 뽑아내기에 효과적이다</li> <li>○ 다양한 사례나 쟁점을 살펴보기에 좋다</li> <li>○ 인권의 의미와 원칙을 구체적인 쟁점 속에 대입해 보고 구체화하는 연습이 된다</li> <li>○ 입장을 모아내는 데 효과적이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어려운 문제를 받게 되면 오히려 관련 주제에 질릴 수 있다</li> <li>○ 모듬 안에서만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만날 가능성이 줄어든다</li> <li>○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칫 논의가 말 많은 사람의 주도로 흘러갈 수 있다</li> <li>○ 모듬별로 다른 쟁점이 주어질 경우, 그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다른 모듬의 논의 결과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한다</li> </ul>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맞고 참여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쟁점이나 과제 선정</li> <li>○ 다양한 의견에 대한 발견인지, 공통의 합의인지, 단순한 현실 분석인지 모듬 토론에서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세우기</li> <li>○ 토론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위한 사전 활동</li> <li>○ 쟁점이 다른 데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질문의 배치</li> <li>○ 모듬 안에서 지켜야 할 토론 규칙</li> </ul>

11) 영상/사진자료의 활용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사진 등을 보고 감상 나누기, 관련 인권 문제 찾기</li> <li>○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과 같은 후속 활동</li> <li>○ 인권의 주인공들을 찾아 사진 찍기</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li> <li>○ 감성을 건드려 울림이 크다</li> <li>○ 참여자의 감성에 맞게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li> <li>○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냄으로써 풍부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다</li> <li>○ 참여자 수가 많을 때도 활용하기 좋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경이나 대리만족에 머무를 수 있다</li> <li>○ 강연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전달에 머무를 수 있다</li> <li>○ 자칫 시간 때우기로 전락할 수 있다</li> <li>○ 너무 자체 완결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이라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li> <li>○ 참여자들끼리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li> </ul>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을 깨우고 상영시간도 알맞은 적합한 영상</li> <li>○ 상영이나 사진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li> <li>○ 다양한 감상들을 경청하면서도 교육 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련한 진행자</li> <li>○ 참여자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예리하고도 풍부한 분석</li> <li>○ 참여자들 상호간에도 배울 수 있는 사전, 후속 활동</li> </ul>

12) 모의활동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건을 주고 모의 법정 열기</li> <li>○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 회복 기관의 결정 재현하기</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주제에 관한 찬반의 논리, 구체적으로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li> <li>○ 단시간 안에 쟁점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 사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데 효과적이다</li> <li>○ 자기와 다른 입장에서 서 봄으로써 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 이해가 없을 때 시작하기 어렵다</li> <li>○ 법정이나 위원회에 세울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일 수 있다</li> <li>○ 관련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접점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li> <li>○ 자칫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li> <li>○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데만 그칠 뿐 인권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li> <li>○ 인권의 문제를 합의나 다수결의 문제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li> <li>○ 인권교육가의 역할이 중립자, 심판자, 관람자에 머무를 수 있다</li> <li>○ 법이나 권위주의적 사법체계, 권리회복기관 등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li> </ul>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의활동으로 경험해보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과 결정 절차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관련 정보</li> <li>○ 사법부 등 권위주의적 구조를 지닌 기관, 심판자의 존재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다른 구조에 대한 상상력</li> <li>○ 인권 감수성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사전 교육</li> <li>○ 모의활동에 활용하기 적합하고 교육 주제에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생생한 사례</li> <li>○ 모의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몰입을 도울 수 있는 소품과 연기력</li> </ul>

참 고 문 헌

인권교육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홍보과정 |

# 청소년인권행동 사례 ‘아수나로 이야기’

| 아수나로 따이루(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소개합니다.



### 1. 아수나로의 탄생설화?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행동하는 청소년', '청소년의 힘으로' 등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2004년 청소년인권운동에 제대로 된 연구와 축적된 자료, 운동론 등의 부재에 문제의식을 안고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는 논문이나 과거 단체들의 활동 자료들을 수집하고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세미나를 하는 등의 '자료 수집'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행동하는 청소년'이나 '한국청소년모임' 등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행동 단체를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수나로는 나이를 먹어버린 사람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써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인권운동과 아수나로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늙은 비청소년들은 연구&지원을

하고, 청소년들은 행동&활동을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2006년 2월 달랑 4명모인 총회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들과 비청소년들이 함께 운동을 만들어가며,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조직/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잡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출범합니다.

어느 단체이건 역사의 산물이 아니겠느냐마는, 아수나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 이후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행동하는 청소년, 청소년의힘 등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성공했던 경험들이 반영, 축적되어 새롭게 청소년인권운동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2. 아수나로? asunaro?

처음 아수나로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죠 ^^;; '아수나로[ASUNARO]'라는 단체 이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아수나로'는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나오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소설 '엑소더스'에서 청소년들은 '아수나로'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고, 청소년들만의 국가를 세웁니다. 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은 한 활동가의 제안으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이름이 중요한건 아니니깐 큰 의미 없이 제안 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이야...."이라고 하더군요.

'아수나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측백나무과의 상록 교목",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고, '불멸', '불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나로'라는 이름이 때로는 '아나수로', '아수라장', '아수나라', '아수나루' 등으로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 또 어떤 분들은 아수나로는 종북좌파단체로 아수나로의 단체명은 "아 수령님의 나라로"의 줄임말이라는 상상력 넘치는 의미를 부여 해주시기도 합니다.

## 3. 주장하는 것, 지향하는 것들?

### (1)

아수나로는 단순히 법이나 조약 같은 곳에 명시된 기존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칙하고, 진보적인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계

임이용시간을 강제로 규제하는 심야온라인게임규제(셋다운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보다 성숙한 어른들이 대신 규제를 해주자'는 기존의 아동인권담론을 넘어서 청소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가로막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자 부당한 통제, 감시, 억압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통제와 감시에 아동·청소년들을 길들이는 반인권적인 보호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발칙하고, 진보적인 청소년인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 (2)

아수나로는 보다 다양하고, 넓은 청소년인권을 고민합니다. 보통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하면 두발자유, 체벌금지과 같은 학생인권문제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모두가 알듯이 청소년이라는 범주 안에는 보통 생각하는 '학생'뿐 아니라 탈학교 청소년(자퇴생), 성소수자 청소년, 청소년 노동자, 여성 청소년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뿐 아니라 가정, 일터, 관계 등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는 좁은 의미의 학생인권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학생/청소년인권문제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 (3)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또는 억압을 만들어 내고, 억압을 정당화 시키는) 사회의 체제나 '구조'에 반대하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두발규제만 보아도 단순히 교사들의 심보가 나빠서, 사악한 교장 때문에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좀 더 다루기 쉬운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개개인들의 통제에 길들이는 위험함이 숨겨져 있다고 고민하며 두발규제에 철폐와 함께 한국사회의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시스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수나로가 모든 인권 문제를 "이게 다 제도 때문이다"라고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제도나 사회의 구조를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와 사회의 구조가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어 내듯 반대로 개개인들의 인식이 제

도와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결정짓기도 하기에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개개인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며, 개개인들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한 활동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또한 아수나로는 청소년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흑인의 해방운동 역사, 여성의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만 하는 많은 권리들은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갈 때 진정으로 지켜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싸워주기만 바랬다면 청소년인권이라는 단어는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착한어른들이 대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설 때 진정으로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과 함께, 대신 해줘야 한다는 인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청소년들을 현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삶과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써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현재의 주인이 아닌 미래의 주인이다"는 불평등한 인식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기본원칙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아수나로는 근현대의 법체계 안에서 글로 쓰인 인권의 의미를 넘어선, 보다 넓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의미의 인권을 지향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며, 단지 '효율성'만을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국가주어나 자본주의, 교육제도, 가정 등의 체제와 권력에 저항합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그 동안 용인되던 차별과 폭력을 문제 삼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저항과 행동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마지막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교육, 성, 정치, 노동, 가정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청소년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배타의 딱지를 붙여 몇 배의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온갖 반인권적 요소들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지향점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가정 등의 사회구조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 또한, 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청소년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으며, 청소년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이 당연한 진리로서 천명되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단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하여 이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수나로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에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수나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운동의 성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청소년들이 다른 누군가의 지도나 계몽 등에 인도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저항과 운동, 직접행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일방적인 지도, 규제,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선도에 반대합니다. 아수나로가 추구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아수나로는 철저히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아수나로는 오직 '인권'이라는 잣대만을 사용하여, 깊고 광대한 영역에 자리 잡은 온갖 반인권적 문제들을 찾아내어 시비를 겁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틀과 타협하기 위해 인권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활동이란, 사람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수나로는, 아수나로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계몽적인 활동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들을 모두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며 청소년들이 직면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4. 아수나로의 활동 내역들

[2006년]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연대체 참여
- "5.14 두발자유 바로지금" 청소년 집회 (5월)
- 두발자유를 위한 자전거시위 (6월)

- "청소년인권캠프 <파란만장>" 진행 (7월)
-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8월)
- "안티수능 페스티벌" 공동주최 (11월)
- 서울동성고 1인시위 및 학내활동 지원

[2007년]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반차별 공동행동" 연대체 참여
- "4.14 미친학교를 혁명하라" 청소년집회 (4월)
-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 운동 (6월)
- "여름 청소년인권학교 <인권서리>" (7월)
- 학생인권 보장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8월)
-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소년 정치참여 UCC규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불복종행동 (11월)
-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 철거운동" (12월)

[2008년]

- "학교자율화반대 청소년연대" 연대체 참여
- "청소년인문학 아카데미 <펜으로도 때리지 말아달라>" 공동주최 (1~2월)
- "학교자율화 조치 반대 청소년 촛불 문화제" (3월)
- "5.17 청소년 행동의 날" 청소년 집회 (5월)
- "캐발랄 젊은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 청소년의 정치적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감선거 출마 퍼포먼스 (7월)
- "청소년 토론회 <이명박 정부에 대처하는 청소년들의 자세>" (7월)
- "제1회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공동주최 (7월)

[2009년]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연대체 참여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스쿨어택: 학내활동 메뉴얼> 출판
- "줄 세우기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농성" 진행 (2월)

- "제2회 청소년인권캠프 <별세상>" 공동주최 (7월)
- "이명박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진행 (8월)
- "휴대전화규제조례 반대 청소년 플래쉬몹" 진행 (9월)
- "80주년 학생의 날 기념 행진 및 선언발표" 진행 (11월)

[2010년]

-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추대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연대체 참여
- "우리는 학교에서 출소했어 <두부 퍼포먼스>" 진행 (2월)
- "청소년 연애 탄압 실태조사 <사랑은 19금이 아니야!>" 발표 (11월)
- "2010 청소년활동가 대회 챗(chat)" 공동주최 (8월)

[2011년]

- "청소년의 정치적권리를 위한 원탁회의" "표현의 자유 연대"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참여
- "<학생인권조례 시대, 진짜 주인 학생이 입 열다!> 청소년 토론회" 진행 (4월)
- "학생인권집회 <실종신고-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진행 (4월)
- "경기도 학생인권캠프 <학생인권, 밀어서 잠금 해제>" 진행 (8월)
- "대구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회 <학교, 인권을 말하다>" 진행 (11월)
- "<한바탕 인권 학교를 비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 진행 (11월)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에세이 수상 거부" 항의행동 진행 (12월)

[2012년]

- "동성로점거 대규모 1인시위, <청소년이 요구한다!>" 진행 (1월)
-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합동추모집회 <안녕>" 및 "학교폭력희생자 추모 및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촉구 집회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서울, 대구 지역 공동주최 (1월)
-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4·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청소년의 정치적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전국 동시다발 진행 (4월)
- <2012 여름 학생인권캠프 "학생인권 마시쨍ㅋ" [ver 경기·서울·인천]> (8월)

[참고자료]

## 심층취재, "청소년인권"을 더듬어보다

### (1) 첫 인상

청소년인권의 첫 인상으로 사람들은 "학생인권"을 가장 많이 꼽는다.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의 첫 인상이 되곤 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 중에 80~90%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이고,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그만큼 눈에 띄게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 직접적이고 몸에 확 와닿는 폭력을 겪곤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여러 차별들,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시당하는 일들, 그리고 보충수업 강요나 수업에 대한 불만 등, 자기가 인간답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안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차별, 괴롭힘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첫 인상은, 이른바 "청소년보호주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들어진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12시 이후에는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셋다운제' 같은 것, 청소년들은 밤10시 이후에 점질방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다. 넓게 보면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청소년보호주의"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제도와 행동들이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청소년들을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통제하기만 하는 것 같을 때, 불만을 느끼고 청소년인권을 만나게 되곤 한다.

세 번째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의 모습에서 청소년인권의 첫 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수가 적은 편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률상 만15세 미만은 정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없고 만15세 이상이어도 이것저것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일 등을 하거나, 반말·욕설을 들어가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인권 문제를 직접 겪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얼굴을 "청소년노동인권"이라고 부르곤 한다.

### (2) 좀 더 친해져보면...

하지만, 청소년인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얼굴들이 있다. 더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모습을 좀 더 친해지며 깊이 사귀다보면, 교육제도의 문제가 드러난다. 수업 방식, 교과서의 내용, 시험 같은 교육정책 하나하나를 학생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와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맨날 시험만 보게 하고 경쟁시키고 줄 세우는 게 교육, 그리고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청소년인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UN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한국의 경쟁적 교육환경이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입시폐지"이다. 좀 더 청소년인권과 가까워진 많은 사람들은 결국엔 "학교"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에도 이르게 된다.

청소년보호주의 역시 다채로운 모습이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건 어떨까? "건강에 나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청소년인권과 친해 질수록,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게 된다. 청소년에 버금가게, 또는 그보다 더 술담배가 유해할 수 있는 환자들, 노인 등의 술담배는 금지하지 않는다. "건강에 나쁘니까" 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거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등의 기준이. 이처럼 사회적 차별과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청소년인권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표정을 잘 살펴보자. 그러면 책이나 영화를 심의해서 나이에 따라 못 보게 하는 제도에선 문화적 권리가 보일 것이고, 정치적 권리 등도 언뜻 보일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 역시 좀 더 그 안쪽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돈과 생계 등에 관한 권리, 말하자면 경제적 권리에 연결된다. 청소년들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부모·보호자 친권자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권리는 어떤가? 일하지 않고도 최소한으로 먹고 입고 싸고 자며 살 수 있는 권리는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청소년노동인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라거나 가족 제도의 문제, 노동과 생계의 문제 같은 풍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가족의 문제도 청소년들이 살면서 많이 겪는 청소년인권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너무나 당연히 좋은 것,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속의 인권 문제를 잘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보호자 친권자들이 자식들에게 휘둘러 수 있는 권력 — 체벌, 감금,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일, 진로에 간섭하고 강제로 명령하는 일 등등 — 은 작지 않다. 하지만, 그게 청소년인권 문제라는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보호자의



소유물이라는 식의 생각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가족의 문제는 청소년인권의 수많은 다른 얼굴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독립적 생활에 대한 권리 등으로도 얘기해볼 수 있다. 아동수당, 학생수당, 생활보조금, 기본소득, 주택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도 머리카락처럼 무수히 많이 붙어 있다.

이 모든 청소년인권의 다양한 얼굴들 중에서도, 특히 잘난 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이 하나 있다. 바로 정치적 권리이다. 현재의 선거권 만19세, 피선거권 만25세로 되어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자고 하거나, 청소년들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정당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시위를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제도와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얼굴이다. 정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되면, 다른 여러 청소년인권의 얼굴들에도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의 얼굴은, 그렇게 잘난 체하는 얼굴이다. 하지만 정치적 권리 역시 경제적 권리나 보호주의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권리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3) 청소년인권의 몸통

물론 청소년인권에는 더 많은 얼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평화권이나, 지문날인 문제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 정보인권, 빈곤장애·성소수자·이주 등 많은 소수자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 청소년들의 사랑할 권리 등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들이다. 그 많은 얼굴들은 여러분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져 가는 과정에서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인권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청소년인권의 많은 얼굴들을 밝혀냈지만, 그 몸통에 대해서나 출생,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하지 못했다. 청소년인권의 여러 분야와 영역, 현장들이 청소년인권의 '얼굴'이라면, 청소년인권의 사회적·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는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청소년인권이 태어난 시기는 보통 20세기(1900년대) 초 중반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부터도 청소년인권은 이미 그 모습을 슬쩍 슬쩍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18세기(1700년대)에 아동·청소년들이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모습들,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가족'이 생겨났던 역사 속에서 청소년인권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

다. 근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따로 취급하는 순간부터, "청소년 인권"은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되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에 근대적인 학교가 세워지고 도시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인권 문제가 나타났다. 때문에 일제시대 당시부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폭력적·차별적인 교육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저항했다. 이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계속 이어져온, 일종의 청소년인권운동이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이른바 "미성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제도, 학교와 가족이다. 청소년은 가족 아니면 학교, 그 둘 중 어딘가나 둘 모두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가족과 학교를 통한 연령별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제도화, 그리고 국가에 의한 체계적 통제는 아동기를 잃어내는 키워드이다."(배경내,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 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2003))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필요한 군인, 노동자 등으로 자라나고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려 한다. 학교의 두발복장규제나 여러 시간에 대한 통제 등이 군대의 모습, 공장이나 통제적인 일터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구분지음으로써 '성인'들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다음 세대 - 청소년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가족과 학교의 보호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사회야말로 청소년인권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이자 원인이고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의 몸통은 아주 굵직하다. 청소년인권 문제는 단지 어른들의 편견이나 세대간 문화 차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학교(교육)는, 가족은 어때야 하는지,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등은 어떠한지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인권을 알아가고 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가 인간적이고 좋은 사회인지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 권리교육 콘텐츠별 활용과 효과

| 문진경(국가인권위원회 주무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asunaro]

웹페이지: [asunaro.or.kr](http://asunaro.or.kr)

공식메일: [asunaro@asunaro.or.kr](mailto:asunaro@asunaro.or.kr)

전화번호: 070-4228-1908

후원계좌: 국민은행 032902-04-275775 김해솔(아수나로)

# 청소년지도사와 인권

2012.9.27.

**6,330,000**

**1,730 PER DAY**


**2,990 / 11,330**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국회도서관은 유흥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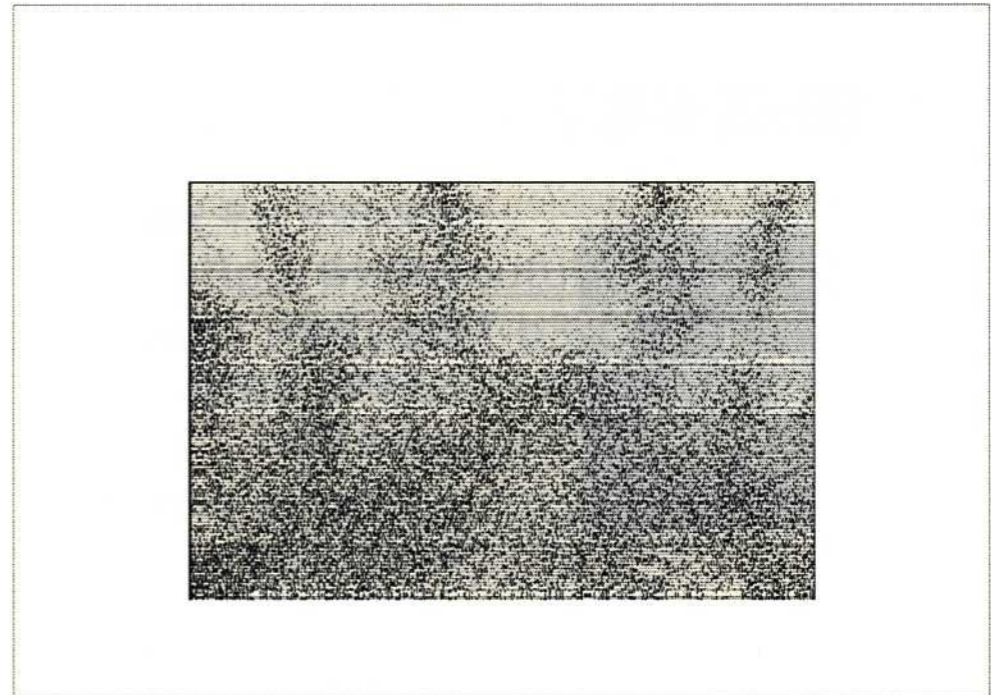


## 모두 살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른 소중한 사람입니다  
몰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 인권감수성



-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부조리  
나 불합리한 관행  
등을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  
는 성질 혹은 능력

## 찬드라 이야기...



- 한국사람과 너무 닮은  
네팔 사람
- 라면으로부터 시작된  
6년 4개월 정신병원  
수용소 생활
- 한국말에 서툰 행려병  
자 혹은 정신병자



<http://www.youtube.com/watch?v=h6f-b3sD9xQ>



## 인권이란?

-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여부와 상관없음
- 자연권(NATURAL RIGHTS) 혹은 도덕적 권리(MORAL RIGHTS)



## 인권의 발달...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세대명칭	정치적, 시민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녹색이념, 개발학
권리	투표·집회·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 학대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소득,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전문직	법률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사회복지	인권옹호, 난민사업, 보호시설 및 구금시설	직접적 서비스, 복지국가 운영, 사회정책 개발 및 옹호, 조사연구	지역사회 개발 등

## 인권은 진화한다.

- ❖ 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님
  -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권리들이 현재 인권으로 보장
  - 사회상황과 민주화 정도에 따라 인권영역은 가변적
- ❖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가능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점진적 의무)
- ❖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영역 확장
  - 생계보장, 의료보장

## 인권의

# 트렌드는

# 유행이다.

東亞日報

2009년 05월 20일 수요일  
A13면 국제

### “전쟁터 군인도 인권법 적용 병사의 치료-관리 우선 돼야”

열사병에 아들 잃은 어머니 승소

전쟁터의 군인에게도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국 국방부가 고수해 오던 이 논리를 한 진사자의 어머니가 오랜 법정싸움 끝에 뒤집었다. 이라크 바스라에 파병된 영국인 병사 제이슨 스미스 씨(당시 32세)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때는 2003년. 예외적 사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온이 섭씨 50~60도를 넘나드는 별실에서 숨 막히는 더위를 호소하다가 결국 숨졌다. 군에서는 가족에게 “제중 병소 건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인을 설명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 캐서린 스미스 씨는 당시 구체적 의료기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녀는 겸손한 도움을 받아 당시 아들이 처했던 상황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내 아들이 부당한 의료장비와 시설, 잘못된 의료진의 판단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캐서린 씨 측은 “병사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유엔인권협약 등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영국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전쟁터에서는 군인에게 인권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종양이 번창하는 전장에서는 정부가 군인들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 사건을 맡은 항소법원의 앤서니 콜라크 재판장은 19일 “군인도 어떤 상황에서든 기본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법 적용 대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정은 기자 [lightee@korea.com](mailto:lighte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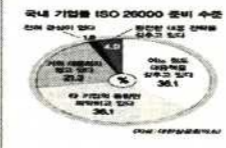
경향신문

2010년 01월 28일 목요일 001면 중일

### ‘착한 기업’ 시대, 명한 국내기업

# 2012년 새해의 부부제트 수주를 앞둔 대기업 A사. 해외 거래처가 사회적 책임(ESG)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적용과 관련해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법 집행이면서 기술훈련을 강요받았는데 ISO 26000이 뭘냐고까지 물어봐라”라니 “A”의 반감했다. 그러자 해외 거래처는 “A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이라며 거래를 중단했다. # 유럽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B사는 유럽 연합에서 대규모 불매운동 상환에 직면했다. B사에 제품들 공급하는 C사에게 국가 연합업체가 연합한 노동조합과 연대를 유망 언니네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거래처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이다.

“착한 소비”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착한 기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올 10월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한다. 이 표준은 기업,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경제 주체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표준이다. ISO 26000이 발표되면 “착한 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의 사회적 요구에 집중하고 투자자들도 매출과 이익을 그기로 하는 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A사나 B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협력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지시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ISO 26000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중·후보를 투자나 제품 구매 때 평가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A사나 B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협력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지시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ISO 26000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중·후보를 투자나 제품 구매 때 평가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A사나 B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협력업체에 사회적 책임을 지시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ISO 26000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중·후보를 투자나 제품 구매 때 평가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기업들의 “착한 기업” 시대”에 대한 대비는 미미한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문한 100대 기업으로 ISO 26000에 대한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55%가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은 기자



문화일보

2010년 01월 20일 수요일 028면 문화

네덜란드 "매춘부도 쉬어야" 새벽 영업금지

"인권 보호" 출몰가 규제 검토

● 7백여명의 인권보호를 위해 알스테르담 출몰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시의회가 매춘부 영업금지 협회 상환, 어떤 야당 4시간 영업금지 등 출몰가 규제 강화 방안을 발의하면서 "매춘부"를 위촉시키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매춘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알이 보아? 한 모델이 19일 밤을 상하루로 매춘주간 행사에서 교묘히 버퍼크를 표현하고 있다.

에쁜 여성일수록 화 줄린다

● 에쁜 여성일수록 화도 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

고 생각하는 여자들한테 자신이 덜 매력적이고 생각하는 여자들한테는 ...

한국일보

2009년 06월 16일 목요일 A12면 사회

"직장은 전쟁터... 애들한테 돈버는 기계로... 쓸쓸해요" 40대 아버지 '매몰된 생활인권'

● "직장은 전쟁터... 애들한테 돈버는 기계로... 쓸쓸해요" 40대 아버지 '매몰된 생활인권' ...

● "직장은 전쟁터... 애들한테 돈버는 기계로... 쓸쓸해요" 40대 아버지 '매몰된 생활인권' ...

● "직장은 전쟁터... 애들한테 돈버는 기계로... 쓸쓸해요" 40대 아버지 '매몰된 생활인권' ...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Q: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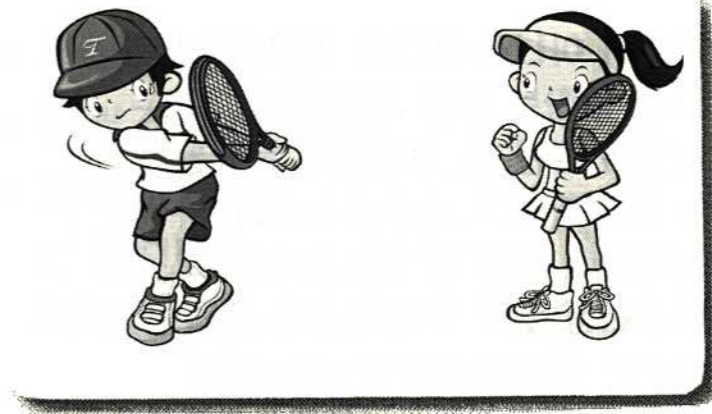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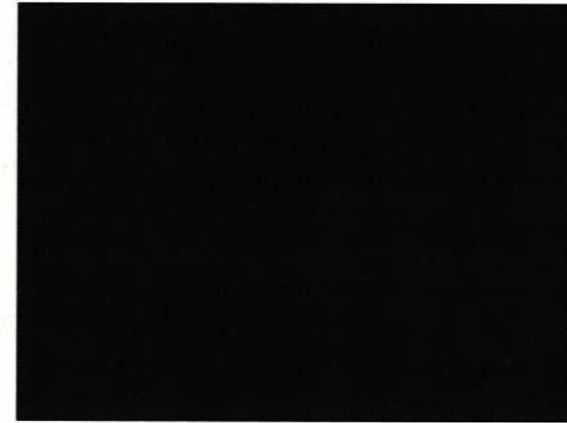


임신과 자퇴

Q: 임신한 상태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나요?



# “차이” 와 “차별”





### 학교에서 배우는 차별

- 번호가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주세요.
- 80점 이하는 반장 자격 없습니다.
- 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은 분류된다.
- 우수한 학생만 따로 모이세요.
- 퇴학생이 잃은 건 학습할 권리
- 학생회장 후보, 학생부장이 골라드립니다.
- 임신한 여고생에겐 오직 자퇴뿐

### 인권교육의 중요성

-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 각자가 가진 권리를 존중
  - 인간은 동등하다는 지식을 전달
- ❖ 인권에 대한 지식 전달만으로는 부족
  - 인권의 역사나 국내외 기준 등 인권지식
  - 인권을 머리로 받아들임
- ❖ 참여자 스스로 삶을 인권적으로 재구성
  - 지식을 넘어 변화의 힘과 열망을 일깨우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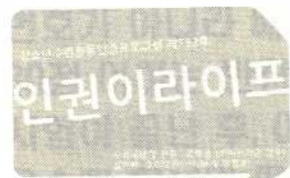
### 청소년인권교육

- 지식의 습득
- 인권감수성 향상
- 실천과제
-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 학교와 연계하여...

## 다양한 콘텐츠

- 교육 매뉴얼(책)
- 영상 및 영화(UCC)
-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
- 세계인권선언(만화)
- 표준교안(PPT)
- [edu.humanrights.go.kr](http://edu.humanrights.go.kr)
- [edu.humanrights.go.kr/humanfront](http://edu.humanrights.go.kr/humanfront)

## 人權이 라이프



- 1회기  
10월 20일 (토) 13:00-16:00  
인권교육 및 차별의 굴
- 2회기  
10월 27일 (토) 13:00-16:00  
인권 알아보기, 인권 퀴즈
- 3회기  
11월 03일 (토) 13:00-16:00  
인권 인터뷰 및 캠페인



• 3회기(11월) 교육 참석자에 활동목표(서약장)를 제공(발급)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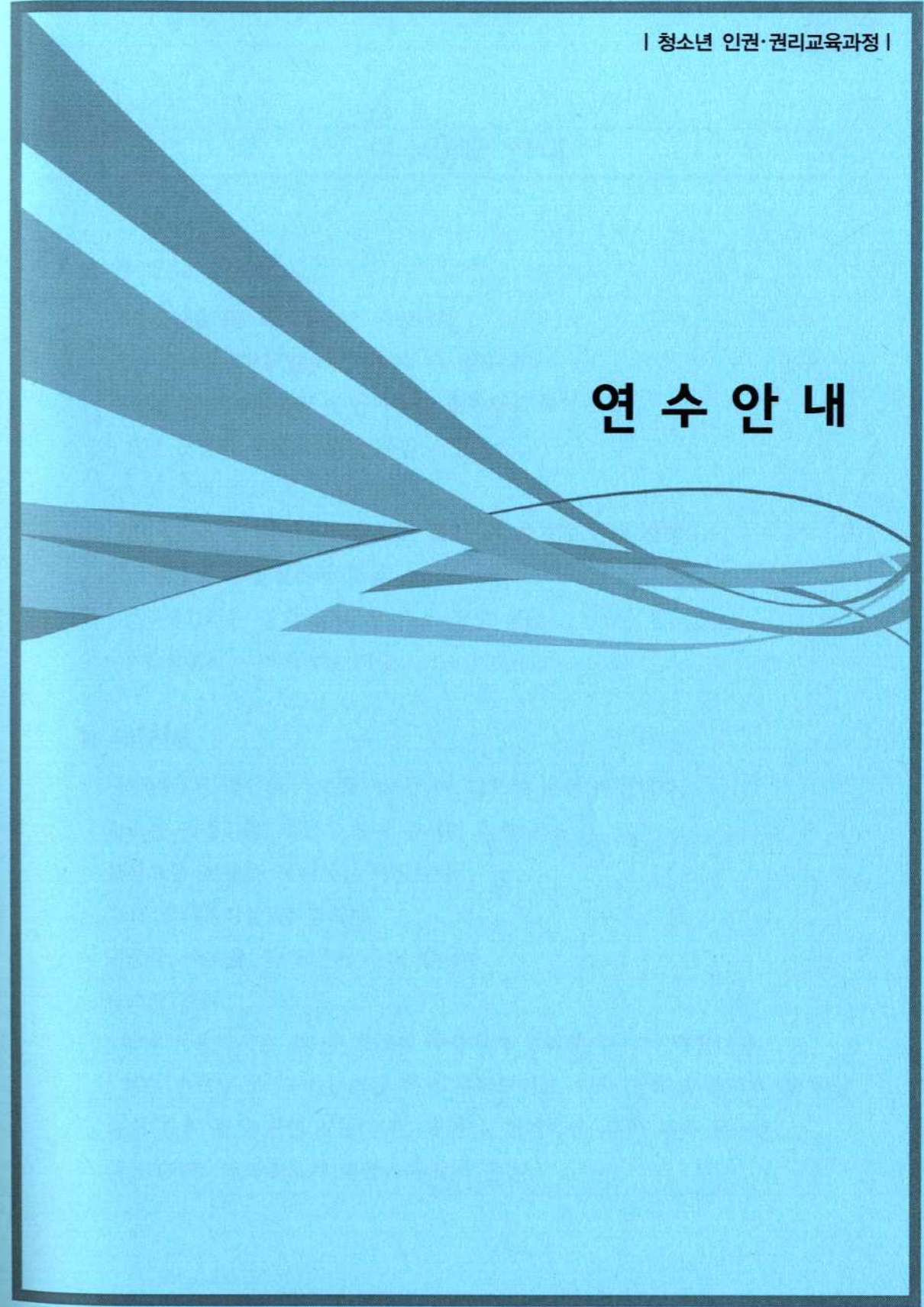
문의 : 449-0000 내선 10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 청소년 인권·권리교육과정 |

# 연 수 안 내



## 연수생활 안내

## ▣ 연수안내

- 강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석부 작성요령(한글 본인이름을 정자체로 표기)
  - 매일 첫강의 시작 10분전 자필 서명
  - 매일 강의 종료 후 자필 서명
  - 연수 종료 후 결석, 지각, 조퇴 확인 후 마지막 란에 서명
- 강의평가서/ 종합설문지 작성
  - 강의평가서는 강의 종료 후 바로 작성 제출
  - 종합설문지는 마지막날 제출

## ▣ 숙소사용

- 생활관에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 바랍니다.
- 숙소는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전등은 꺼주시길 바랍니다.
- 숙소 열쇠관리를 잘 합시다.
- 귀중품, 소지품 등 도난에 주의 합시다.
- 숙소키 관리
  - 함께 사용하시는 분 중 가급적 수령자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 종료일 08:50까지 퇴실 완료 부탁드립니다, 키는 강의실 출석부 옆 반납
- 숙소 사용 중 불편한 사항(전등, 세면기, 변기막힘, 휴지 부족 등...)은 내선797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무).

### ▣ 편의시설

- 양호실(생활관 A동)은 09:00~18:00까지 운영합니다(구내전화 : 7805).  
야간 비상약지급 : 생활관 A동 1층 프론트(구내전화 : 7979)
- 매점운영 : 11:30~13:30, 17:00~19:30, 21:00~22:30
- 체육활동(체육관, 탁구장 등) :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이용가능  
생활관 A동 프론트에서 체육용품 이용문의 바람
- 인터넷 검색 : 본관 1층 및 생활관 A, E동 로비에서 이용가능
-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노동부 환급 관련 안내

- 온라인상 서류제출(훈련위탁계약서 2부, 근로시간의 교육 동의서 1부)과 오프라인상 서류제출(재직증명서 1부)이 완료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연수본부와 상의(시작일 16:00 이전)
- 연수 종료 후
  - 전문연수 수수료증 1부, 환급수수증(환급대상자 해당)1부 발급됩니다. 영수증은 youthworker.or.kr 마이페이지-나의 연수내역에서 영수증 출력하기를 눌러 자체적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환급신청
  - 연수 종료일 3주 후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사)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youthworker.or.kr - 전문연수 - 노동부환급안내 다운로드 가능) 1부
- 환급수수증 사본 1부, 영수증(마이페이지 자체출력)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셔야 교육비 환급이 완료됩니다. 소속기관의 연수비 송금 확인증 1부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원활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청소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항상 이름표를 착용하고 연수 중인 지도자임을 알립니다.
- 수련원 전지역이 금연장소입니다.
- 연수기간 중 음주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 연수시설을 아끼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생활 중 지도자의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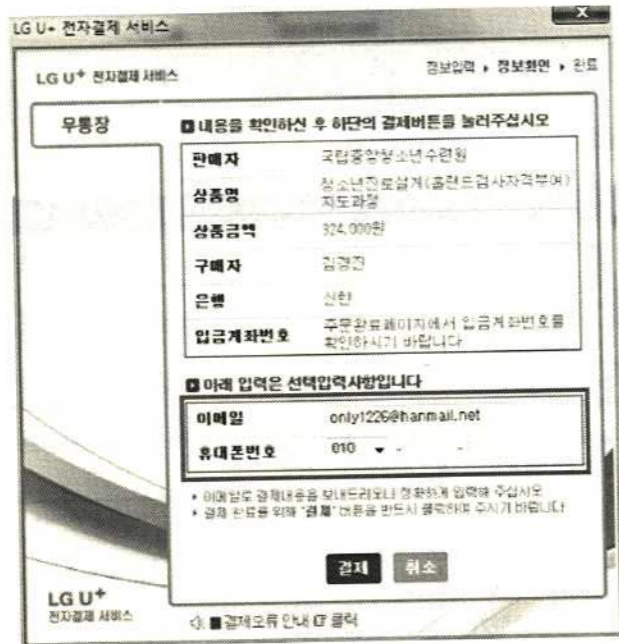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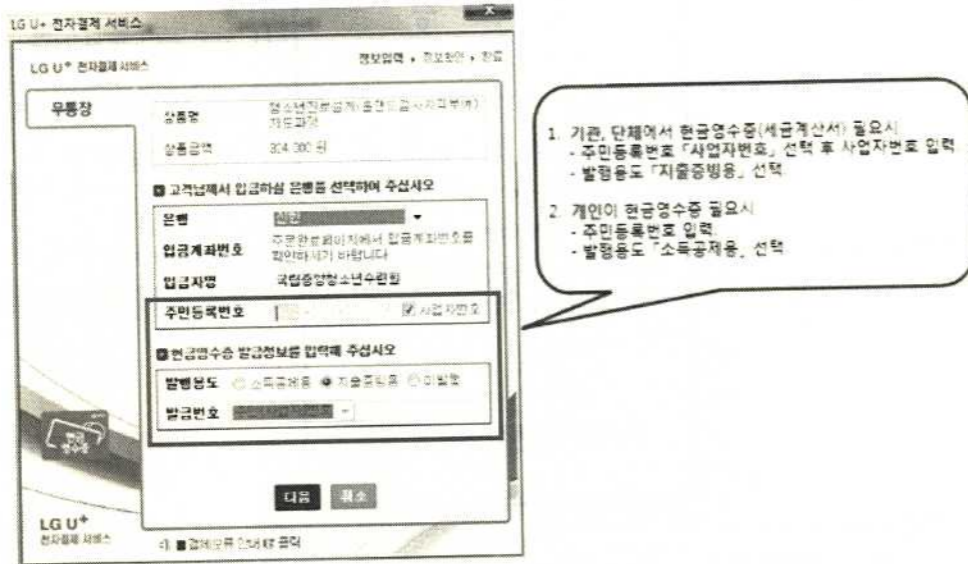
- 주간(연수본부) : 041-620-7793 본관 1층 위치
- 야간(22:00이후) : 당직실 A동 프론트 (구내 7979, 7861)
- 전문연수 담당자 : 심은진





■ 신청단계시 유의사항

- 노동부 환급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선택
- 「지출증비용」으로 영수증 발급으로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방관서-공단간 관할구역 비교 〉

지방관서	인력공단
49개(제주포함)	24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지역본부(마포)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사(광진)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관악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지사(영등포)
원주지청, 강원지청	강원지사(춘천)
영월출장소, 태백지청, 강릉지청	강릉지사(강릉)
부산북부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부산지역본부(북구)
부산동부지청	부산남부지사(남구)
진주지청, 창원지청, 통영지청	경남지사(창원)
울산지청	울산지사(울산)
대구북부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역본부(대구)
안동지청, 영주지청, 구미지청	경북지사(안동)
포항지청	포항지사(포항)
인천북부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경인지역본부(인천)
안산지청, 안양지청, 경기지청, 평택지청	경기지사(수원)
고양지청, 의정부지청	경기북부지사(의정부)
성남지청	성남지사(성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역본부(광주)
익산지청, 전주지청, 군산지청	전북지사(전주)
여수지청	전남지사(순천)
목포지청	목포지사(목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역본부(대전)
청주지청, 충주지청	충북지사(청주)
보령지청, 천안지청	충남지사(천안)

\* 공단 소속기관 세부위치 : <http://www.hrdkorea.or.kr/5/4/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의 관할구역 및 연락처〉

기관	관할구역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산업 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의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 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3274-9680~4 02-3274-9621~3 02-3274-9626-8	3275-1104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seoul.hrdkorea.or.kr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 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성북구·강남구	02-2024-1751-5 02-2024-1761-5	461-8304	서울 광진구 독섬로32길 38(자양4동 63-7)	seoule.hrdkorea.or.kr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의 서초구·관악구 ·구로구·금천구·동작구·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02-6907-7161~7 02-6907-7141~7	885-671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121-102)	seouls.hrdkorea.or.kr
강원지사	강원도의 원주시·횡성군· 춘천시·화천군·홍천군· 양구군·인제군, 경기도의 가평군	033-248-8506	248-8540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동내면학곡리 101-24)	gangwon.hrdkorea.or.kr
강릉지사	강원도의 영월군·정선군· 평창군·태백시·삼척시· 강릉시·동해시·속초시· 고성·양양군	033-650-5723	650-5729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방동리 649-2)	gangneung.hrdkorea.or.kr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김포시	032-820-8642~6	819-3985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incheon.hrdkorea.or.kr
경기지사	경기도의 안산시·시흥시· 안양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광명시·수원시· 화성시·용인시·평택시· 오산시·안성시	031-249-1202, 1203, 1208 031-249-1241, 1244, 1264	249-12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탑동906-0)	gyeonggi.hrdkorea.or.kr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 고양시·파주시·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031-850-9112, 9113, 9115	853-7364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신곡동 801-1)	gyeonggin.hrdkorea.or.kr
성남지사	경기도의 성남시·이천시· 여주군·광주시·하남시· 양평군	031-750-6204, 6207, 6253	750-621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수진동 4554) *대한도시가스(주)건물 4-5층	sn.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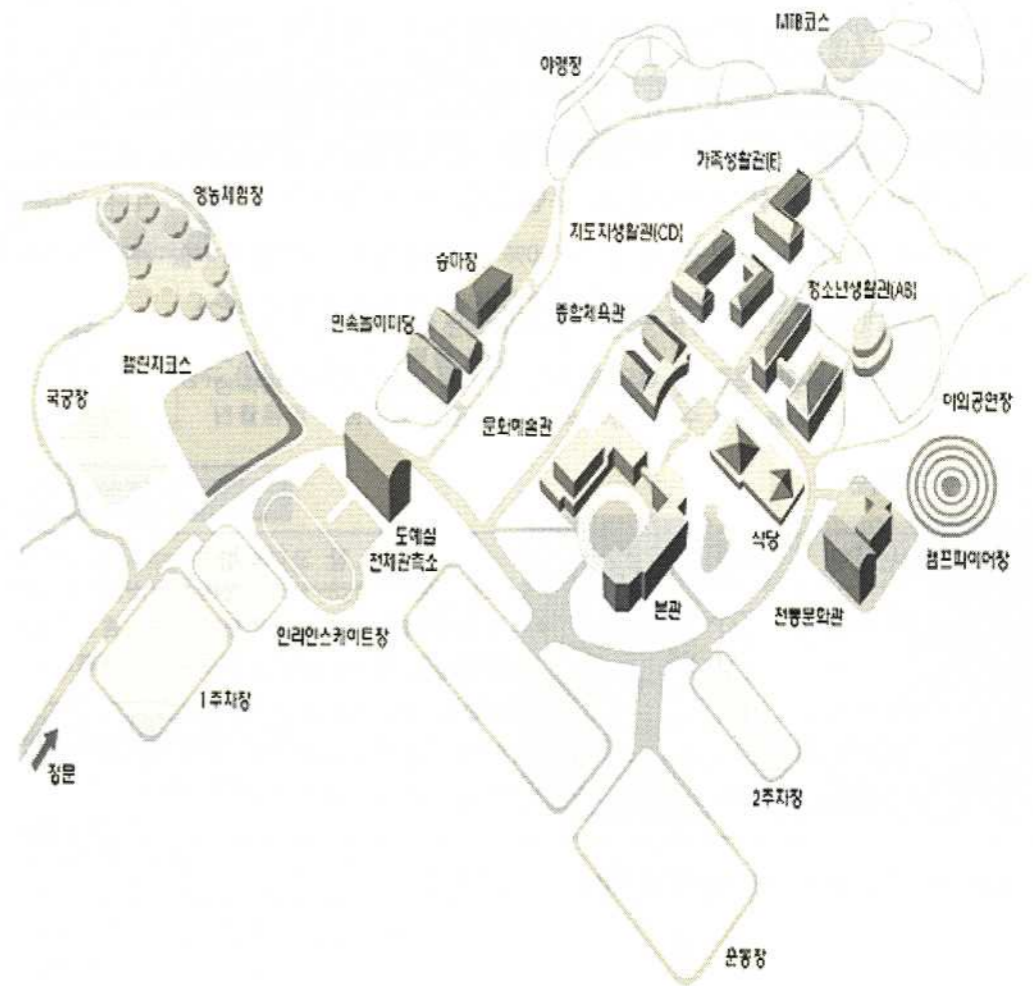
기관	관할구역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산업 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의 북구·사상구· 강서구·중구·동구·서구· 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 진구·연제구, 경상남도의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1-330-1822~8	343-1453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busan.hrdkorea.or.kr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의 동래구· 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051-620-1934, 1971	621-7386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busans.hrdkorea.or.kr
경남지사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 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 군·하동군·남해군·창원시· 합안군·의령군·창녕군· 통영시·고성군·거제시	055-212-7252, 7250	212-724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중앙동 105-1)	gyeongnam.hrdkorea.or.kr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76-9033, 260-9035	261-9034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ulsan.hrdkorea.or.kr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의 서구·달서구· 북구·중구·동구·남구· 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의 고령군·성주군·철곡군 (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군위군·경산시· 영천시·청도군	053-580-2342~6	586-7605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daegu.hrdkorea.or.kr
경북지사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영주시·봉화군·문경시· 상주시·구미시·철곡군(석적 면 중리 국가산업단지)·김천시	054-440-2071~2	855-2001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명리 406-1)	gyeongbuk.hrdkorea.or.kr
포항지사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 울릉군·울진군·경주시	054-278-7704~5	278-7732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장성동 1370-11)	pohang.hrdkorea.or.kr
한국산업 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장성군· 영광군·함평군	062-970-1781~3, 1785	972-276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kwangju.hrdkorea.or.kr

기관	관할구역	(대표)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홈페이지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지역	063-210-9203-5	210-925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 2가 750-3)	jeonbuk.hrdkorea.or.kr
전남지사	전라남도의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061-720-8550-2	725-5097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조례동 480)	jeonnam.hrdkorea.or.kr
목포지사	전라남도의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진도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282-8674	284-1959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대양동 514-4)	mokpo.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042-580-9115, 9118, 9119	586-8827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daejeon.hrdkorea.or.kr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지역	043-279-9020-2	278-308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신봉동 244-3)	chungbuk.hrdkorea.or.kr
충남지사	충청남도의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	041-620-7652, 7653, 7655	620-76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신당동 434-2)	chungnam.hrdkorea.or.kr

※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업무수행

## 시설 안내

### 수련원안내도



\* 전통문화관 명칭 변경 : 국제교류관

## 연 수 평 가

### 1. 전문 연수평가 · 수료 · 포상

#### Ⅰ 연수수료 기준

- 1일 80% 미만 출석시 1일 무단결석 처리
-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공문서 처리 등을 통해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연수본부와 상의
- 연수생활 태도가 불량(무단결석, 무단결장, 지각, 질서문란 등) 하거나 과정 중 실기능력 평가 등에 불응 시 출석 80% 이상이라도 수료할 수 없다.
- 연수생활태도 불량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본부에서 평가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별도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의해 적용

#### Ⅱ 벌점부과 기준

구분	위반사항	기준	벌점	참 고 사 항
연수 생활	무단결석	1일	20	• 벌점합계 20점 이상은 퇴소
	지 각	1회	5	• 벌점합계 15점 이상은 경고
	연수태도	1회	10	• 벌점합계 10점 이상은 주의
	기물파손	1회	10	• 동일한 행위가 2개 이상의 벌점 사유에 해당시
	질서문란	1회	5	• 벌점이 높은 것 하나 적용

※ 벌점 처분 예외 규정(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준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개

### 설립목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거, 2010년 8월18일에 설립되었으며,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등 청소년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인격형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션·비전

#### 미션

청소년활동 진흥으로 청소년의 건강성장과 역량개발을 주도한다.

#### 비전

청소년활동을 종괄 지원하는 중추기관

#### 핵심가치

열정

소통

봉사

### CI



청소년의 초성인<KY>과 따뜻함과 포용을 의미하는 하트 모양을 결합한 형상입니다. 자주색은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청색은 우리 청소년을, 녹색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상징합니다.  
한국청소년진흥원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이끌어가는 청소년활동의 중심임을 표현했습니다.

### 연락처

- 사 무 처 : 02-330-2800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041-620-7700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033-330-0800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 061-830-1500

### 홈페이지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www.kywa.or.kr](http://www.kywa.or.kr)
- ◎ 산하 수련원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www.nyc.or.kr](http://www.nyc.or.kr)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www.pnyc.or.kr](http://www.pnyc.or.kr)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 [www.nysc.or.kr](http://www.nysc.or.kr)
- ◎ 청소년활동 관련 사이트
  -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 [www.all4youth.net](http://www.all4youth.net)
  - 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 [www.yap.go.kr](http://www.yap.go.kr)
  - 청소년자원봉사 : [www.dovol.net](http://www.dovol.net)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www.koraward.or.kr](http://www.koraward.or.kr)
  - 청소년특별회의 : [www.withyouth.or.kr](http://www.withyouth.or.kr)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www.youthacademy.or.kr](http://www.youthacademy.or.kr)
  - 열린장학금 : [www.janghak.or.kr](http://www.janghak.or.kr)



강 의 평 가 서

본 평가서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연수과목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명 :	강사명 :
-------	-------

※ 선택형 질문은 해당 동그라미 부분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및 종사분야

성 별		종 사 분 야						
남	여	수련원 (유스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단체	공무원 (교육청소속)	사회(아동) 복지기관	기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다음은 강의 만족 및 전반적인 전문성 향상 관련에 대한 평가입니다.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강사 · 강의만족	1.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의 정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강의에 대한 준비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강의내용의 명확성 및 흥미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문성	1. 강의내용을 이해하였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청소년지도 및 이해에 필요한 강의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지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전문지식이 증가되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해당 강의에 꼭~ 추천하고 싶은 새로운 강사님(중청연수제외)이 계시면 추천 바랍니다.

6. 본 강의를 동료나 선·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									반드시 추천 하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설문지(앞·뒤표기)

이 설문지는 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유익한 연수과정을 개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수본부 -

※ 해당사항 빈 칸 내부에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 사항

과정명								성별		
								남	여	
연령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	40~45미만	45~50미만	50이상			
근무연한	1년 미만	1년~2년이하	3년~4년이하	5년~6년이하	7년~10년이하	11년~14년이하	15년이상			
근무지역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전북	전남(광주)	제주
종사분야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교육청소속기관 (교육원, 아영장 등)	대학(원)생	청소년 단체	관련 공무원	복지관련	기타	

### 2. 본 과정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칸 O 표시)

구분	공문	홈페이지탐방	동료 전언	개별메일	개별sms문자	소속기관에서 안내	기타(기재요망)
참여경로							

### 3. 전문연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경로 중 선호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1, 2, 3 순위로 표시하세요)

구분	공문	홈페이지탐방	동료 전언	개별메일	개별sms문자	소속기관에서 안내	기타(기재요망)
선호경로							

### 4. 본 과정 참여 목적 및 동기

참여목적	자기개발 (기능습득)	기관평가점수 획득	정보교류 및 친교	자격가점확보	기관의무교육시간이수	기타
참여동기	개인적 또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기관 요구		기타 (기재요망)

### 5. 전문연수 선호 기간 및 전문연수 참여주기, 참여 어려움에 관한 사항

선호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당일	기타
참여주기	처음참여	일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삼년에 한번	일년에 두번이상	거의참여하지않음	기타
참여 어려움	업무대체인력 부족	참여시간부족	경제적비용 부담	교육장소가 없음	직장, 동료이해부족	업무수행에 도움이 별로되지 않음	기타

### 6. 본인의 사전준비 및 기관지지에 관한 사항

구분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사전준비	1. 나는(연수생) 본 과정 이수에 필요한 사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기관지지	2. 나의 조직과 상사는 내가 본 과정을 받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					
비용지원	3. 본 과정은 기관에서 전액 교육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학후 전문연수에 꼭 필요한 과정이나 꼭 듣고 싶은 강사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청소년지도자도사 전문연수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본과정의 느낀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9 기타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8. 본 과정을 통하여 선·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공통 효과 (impacts)	4. 나는 이번 과정 참여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5.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은 내 직무수행에 유용할 것이다.					
	6. 전반적으로 이번 과정을 이수한 것이 나의 업무 성과(청소년활동지도력, 직무 등)를 향상 시켜줄 것이다					
	7. 나의 현재 또는 장래에 타당한 업무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과정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용 (contents)	8. 대체로 본 과정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9. 나의 경력을 고려할 때, 본 과정에 참여한 것은 시기적절했다.					
	10. 본 과정의 목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분명하게 진술되었다					
	11. 본 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관련분야에서 확립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기술되었다.					
과정설계 (Design)	12. 본 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13. 본 과정은 참가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14. 본 과정에서 활용된 교육형태(방법)는 본 과정의 학습에 적절하였다.					
	15. 본 과정에서 사용된 교육매체(예, 시청각자료)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다.					
교육환경	16. 본 과정중에 제시된 교육자료(예, 교재, 사례 등)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7. 본 과정에 할애된 시간은 설정된 과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였다.					
	18. 본 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강사(들)의 선정은 적절하였다.					
	19. 본 과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용이하였다.(홈페이지신청)					
연수진행	20. 강의시절 및 강의 환경은 쾌적하였다.					
	21. 식음환경은 쾌적하였다.					
	22. 식음의 음식은 맛이 있었다.					
	23. 수습환경이 쾌적하였다.					
전문연수 기여도	24. 본 과정 진행자는 본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25. 본 과정 진행자는 친절하고 협조적이다.					
	27.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전문연수는 청소년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8.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는 지도자 전문성(직무 및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한다.					

7. 다음은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2012. 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 인권·권리교육과정 -

인쇄일 2012년 9월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인 박 종 문  
 발행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246-1  
 TEL : 041) 620-7700  
 http://www.nyc.or.kr  
 인쇄처 형우디앤피  
 TEL : 02)2263-3887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